소개

리베르소 클래식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핑크 골드

1931 년 오리지널 리베르소에 경의를 표하는 새로운 케이스 사이즈와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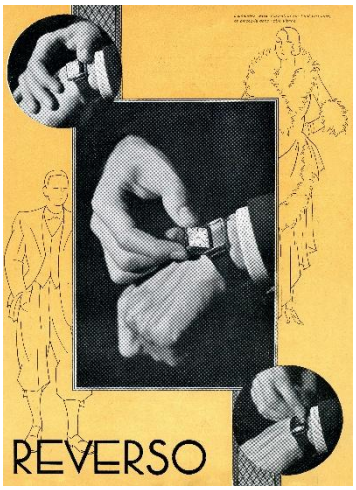
주요 정보:

- **1931 년 오리지널 리베르소의 특징을 반영한 디자인:** 컬렉션의 상징적인 아르데코 라인에 18K 핑크 골드(750/1000)의 따뜻하고 우아한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40.1 x 24.4mm 케이스
-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822:** 42 시간의 파워 리저브 제공, 108 개의 부품으로 구성
- **교체 가능한 브레이슬릿:** 18K 핑크 골드(750/1000) 핀 버클을 갖춘 블랙 앨리게이터 스트랩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 아르데코 디자인의 다채로운 매력과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담아낸 리베르소 클래식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의 새로운 해석을 선보입니다. 한층 작아진 18K 핑크 골드(750/1000) 케이스는 수직 새틴 브러싱, 텍스처 패턴 및 전사 처리된 블랙 숫자가 조화를 이루는 실버 다이얼과 세련된 대비를 이룹니다.

폴로 경기장에서 디자인 아이콘이 되기까지

1931 년에 출시된 리베르소는 당시 유행을 선도했던 '스포츠를 즐기는 신사(sporting gentleman)'를 위해 탄생했습니다. 1858-1947 년 당시 영국령 인도에 주둔하던 장교들은 격렬한 폴로 경기 중에도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시계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형태와 기능을 완벽하게 통합한 리베르소가 탄생했습니다. 트렌드세터들로부터 사랑받았던 리베르소는 곧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다양한 모델로 선보이며 본래의 스포츠용 목적을 뛰어넘게 됐습니다. 리베르소는 아이코닉한 양면 케이스(특허 CH159982)와 독특한 아르데코 라인을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치가 됐습니다.



리베르소 광고, 1931 년

리베르소 클래식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의 한층 작아진 새로운 18K 핑크 골드(750/1000) 케이스는 시계 본연의 정체성은 간직한 채 스포티하거나 우아한 스타일, 모던하거나 빈티지한 스타일,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스타일 등 다채로운 개성을 담아내는 리베르소 고유의 매력을 완벽하게 드러냅니다.

스포티함과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18K 핑크 골드(750/1000) 케이스

새로운 18K 핑크 골드(750/1000) 케이스와 한층 작아진 사이즈는 은은한 텍스처 및 대담한 아라비아 숫자의 세련된 조화를 통해 현대적인 품격을 표현하며, 리베르소 클래식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에 신선한 매력을 더해줍니다. 메인 다이얼과 스몰 세컨즈 디스플레이의 중앙을 장식한 텍스처 패턴은 빛과 질감이 이루는 섬세한 조화를 연출합니다. 쌓아놓은 동전의 테두리를 떠올리게 하는 패턴은 아워 및 세컨즈 트랙의 섬세한 수직 새틴 브러싱과 대비를 이루며, 또렷한 블랙 숫자는 시각적으로 강렬한 포인트를 선사합니다.



2024 년에 출시된 우아함과 모던함이 균형을 이루는 케이스 사이즈는 1931 년 오리지널 리베르소의 비율과 매우 유사합니다. 40.1 x 24.4mm 의 크기와 7.56mm 의 슬림한 두께를 갖춘 케이스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손목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리베르소 모노페이스의 케이스백은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거나 소중한 추억을 기념하는 인그레이빙을 새겨 넣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42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822 를 탑재한 새로운 리베르소 모노페이스는 18K 핑크 골드(750/1000) 핀 버클을 장착한 교체 가능한 블랙 앨리게이터 스트랩과 함께 제공됩니다.

18K 핑크 골드(750/1000) 소재로 선보이는 새로운 리베르소 클래식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는 1931 년 오리지널 디자인의 비율을 연상시키는 작아진 케이스와 18K 핑크 골드(750/1000) 특유의 따뜻하고 우아한 감성을 결합해 리베르소의 변함없는 매력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클래식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케이스: 18K 핑크 골드(750/1000)

크기: 40.1 x 24.4mm, 두께 7.56mm

무브먼트: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스몰 세컨즈

파워 리저브: 42 시간

다이얼: 전사 처리된 블랙 컬러의 숫자, 실버 컬러 다이얼, 수직 새틴 브러싱, 텍스처 패턴

방수: 3bar

교체 가능한 스트랩: 18K 핑크 골드(750/1000) 핀 버클을 갖춘 블랙 앨리게이터 스트랩

레퍼런스: Q3862520

리베르소 소개

1931 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의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한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워치는 세련된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형 케이스 디자인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됐습니다. 90 년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79 개의 다양한 칼리버를 탑재하고 39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탈 소재의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젬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됐습니다. 리베르소가 출시한 지 90 여 년이 지난 오늘날, 리베르소는 탄생에 영감을 준 모던함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 아틀리에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82 곳의 아틀리에, 108 가지의 공예, 그리고 69 가지 시그니처 기법을 포함한 총 235 가지의 노하우가 한데 모인 매뉴팩처 아틀리에에서는 독창적인 기술과 아름다운 미학, 그리고 절제된 세련미가 한데 어우러진 탁월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이 탄생합니다.
